국제표준동향

다보스포럼과 ISO의 기여

김 은 정
기술규제대응과 전문위원
02-509-7257
ej1448@mke.go.kr

전 세계적으로 경제적 긴장감이 팽배한 가운데, 1월 23일부터 27일까지 스위스 다보스에서 개최된 세계경제포럼의 참자가들은 "통합적인 지도력과 대응의 부재"를 지구가 직면한 현재와 미래의 경제적 환경적 및 사회적 문제로 꼽았고, 이에 따라 어떻게 기후변화, 물 공급과 보안 및 영양을 아우르는 "총체적인 혁신"을 통해 지구가 직면한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세계경제포럼의 기구 회원인 ISO의 사무총장 Alan Bryden은 회의기간 중 다양한 모임과 워크샵에 참석하여, 어떻게 자발적 국제표준을 개발하는 지를 개략적으로 발표하고, 자발적 국제표준을 통해 세계시장을 늘리고, 우수 관리와 조직화된 관행의 실천을 통해 기술을 보급할 수 있음을 피력하였다. ISO는 이러한 표준 개발의 선두자로, 현재 17000여종 이상의 규범을 갖추고 있으며, 매달 약 100개의 표준을 개발 또는 개정하는데, 이는 지난 5년에 비해 32%가 증가된 것이다. Alan Bryden는 특히 통합적 혁신이 필요한 몇 가지 주요 주제에 대해 개략적으로 발표하였다.

기후변화

기후변화와 관련하여, 석탄 및 기타 온실가스배출 거래제도가 배출 감소를 위한 투자와 이행을 독려하는 적절한 해답이 될 것이라는 데에 전반적 합의가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신생시장이 형성되려면 다양한 측면에서 상호연관성이나 메카니즘에 대한 국제적인 인정 및 검증체계 확립이 선행되어야한다. 여기에는 "탄소배출권 거래제," "탄소배출현황" 및 "탄소중립" 등의 방법과 국제적으로 합의된 요구조건 만족을 통해 배출을 줄이고자 하는 정부 및 업계의 노력이 포함된다.

참가자들은 이 분야의 표준의 일관성과 수렴성을 더욱 강화 할 것을 강조하였다. Alan Bryden는 온실

가스배출의 검증 및 계산에 관한 표준 ISO 14064와 ISO 14065에 대해 설명하였다. 또한 ISO/TC 207 환경관리의 작업범위를 탄소배출현황 평가를 비롯한 기후변화와 관련된 사안까지 확대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에너지효율과 재생가능 에너지자원과 관련된 표준개발에 박차를 가하기로 결정하였다는 것도 덧붙였다.

물 공급 및 보안

물 공급 및 보안과 관련하여, 총회 및 5회의 부속 회의에서 논의되었다. 기후변화와 함께 현재의 인구분포와 물 사용량 급증으로 물에 대한 문제가 대두 되었고, 이와 관련하여, 최근 ISO는 안전한 마시는 물 확보와 위생을 위한 물 자원을 관리하는 실용적 방법에 대한 일련의 표준을 간행하였다. ISO 24510과 ISO 24511 및 ISO 24512는 물을 관리하는 기관이 사용자 기대를 만족시키고 지속가능한 발전원칙을 위한 표준이다.

영양

영양 역시 복잡한 문제 해결을 위한 혁신이 필요한 분야이다. 농업이 세계 물 자원의 90%를 소비하며, 인구 고령화와 식품 에너지 대체로 인해 부족현상을 일으킨다. 또 다른 문제는 농지를 얻기 위해 숲을 파괴하는 행위로, 상황을 더욱 악화시킨다. ISO는 이에 대처하기위해 식품안전관리시스템인 ISO 22000을 간행하였고 이는 이미 60국에서 채택되었다. 또한 바이오연료에 관한 표준을 개발하기위한 위원회를 조직하여, 여러면에서 도움이 되리가 기대된다. 위원회는 에탄올과 바이오디젤의 사용 및 분배에 관한 물리적 화학적 특성에 중점을 두게 될 것이다.

출 처 | ISO News
| 기술표준 2008. 4